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나보다 높은 바위

(시편 61: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부여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망대이시고 장막

우리 가운데는 이해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 슬픔과 고통, 고난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바위는 하나뿐입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홀로 고독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된 후에도 늘 고독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 1. 집에서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2절).

시인의 처지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약해질 때에’와 ‘땅끝’이라는 두 단어가 잘 말해줍니다. 약해질 때는 아사직전의 기진한 상태를 말한다. 땅끝은 시인이 느끼는 고독감이 극심함을 나타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있는 다윗은 시온산에 있는 주의 성막에서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일단 진압되었으나 잔당의 저항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무거운 바위에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4절). 이같이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입재와 가깝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 2. 우리 자신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을 바위로 부른 것은 시편에 20회 이상 나타납니다. 다윗은 바위를 들어 두가지 모습을 묘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거나 높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정상에 있을 경우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잊고 우리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위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임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그들의 바위로 바라보았으나 다윗은 자기보다 높으신 바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위로 묘사한 후 그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스피전 목사님은 우리편에서 우리는 바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에게 인도해 줄 성령이 또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자격으로는 그리스도께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는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막 9:24).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 대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 3. 네 가지 은유

이 시에서는 다음의 4가지 은유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 (1) 피난처

피난처는 하나님의 바위 되심과 가장 민첩한 관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시 18:2, 31:2, 71:3, 62:7, 94:22).

#### (2) 견고한 망대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망대는 백성의 피난처입니다. 망대는 성벽을 세운 도시에서는 피난처처럼 보이나 광야의 피난처와는 다릅니다.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망대는 공격자로부터 방어하는 일을 돕습니다.

#### (3) 장막

장막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주인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자기 장막 밖에서 손님 세 분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손님은 주인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장막은 tabernacle로 번역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법궤가 있던 광야의 tabernacle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의미로 장막을 말했다면 그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 (4) 피난처 되는 어머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권능과 또한 친근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접근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거나 그 품안에서 떠나 있으면 해로울 뿐입니다.

### 4. 메시아에게서 성취된 기도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6-7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 메시아에게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지상의 왕에게는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가 솔로몬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중에는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다면 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실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관해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언입니다. 다윗이 시편 61편에서 말하는 왕이 바로 이런 분이려면 본 편은 메시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인간이 원수나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부여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망대이시고 장막이십니다.

환난날에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이번 주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 23일(월)-25일(수) 서울교회
- 중등부 : 23일(월)-25일(수) 행복휴양림(강원도 정선)
- 고등부 : 26일(목)-28일(토) 행복휴양림(강원도 정선)

2007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금주 중에는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여름성경학교가 열리는 한편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수련회도 열린다.

교육1국 국장 서문석 장로는 교회가 여름에 학생들을 붙들지 않으면 학생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킬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식의 프로그램에서 과감히 탈피하려고 한다. 우리교회가 갖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여름행사의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여 어린이들을 맞으려고 기도하며 교사 모두가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학부형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일들은 접어두고 모든 일에 우선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여름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고 한다.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는 유아부와 유치부는 7월

23일(월)과 24일(화) 이틀 동안, 유년부와 초등부는 23일(월)-25일(수)까지 3일간 우리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중등부(부장 윤봉준 장로)와 고등부(부장 최차순 집사는 강원도 정선의 행복휴양림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중등부는 회복을 주제로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이종윤 목사와 윤영국 목사 이은준 선교사(카자흐스탄)가 강사로, 고등부는 '가서 제자 삼으라'를 주제로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이종윤 목사와 정수길 목사 박광일 전도사가 강사로 각각 메시지를 전하며 학생들이 회개와 결단의 눈물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게 된다.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 받아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기도한다.

## 서울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교회 멀티미디어단(단장:오정수 장로)에서는 국내외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주일예배 생방송 (7월29일 첫 서비스 예정)

주일예배 생방송이 시작된다. 해외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지방 출장 등의 기타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주일2부 예배는 물론 점차적으로 찬양예배까지 주일에 생방송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 2. 더욱 풍성한 콘텐츠(8월 중순 예정)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뉴스·신문형 홈페이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울교회만의 양질의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서비스하게 된다. 이로써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쉽고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된다.

### 3. 커뮤니티 솔루션 도입(9월 중순 예정)

서울교회 교회학교, 교구, 찬양대, 전도회 등 교회 학교 및 기관의 온라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솔루션을 도입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활동을 위한 편리한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 4. 교회 신문 순례자를 보다 편하게 이용 (8월 초순 예정)

매주일 발행되는 우리교회 신문 순례자를 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에서도 쉽게 페이지를 넘기며 확대하여 자세하게 보거나 축소하여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순례자의 기사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난 호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개편되는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인터넷 선교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성경통독새벽기도회 금주 순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날짜	7/23	7/24	7/25	7/26	7/27	7/28	7/29
성경범위	시6-28	시29-46	시47-67	시68-80	시81-99	시100-110	시111-130
담당 교역자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정수길 한상은	이규정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윤영국	윤영국 한상은 장석남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 긴급기도 요청

탈레반에 납치된  
김지나 양(12교구) 구출되도록

12교구 김차랑 집사(선연자 권사)의 딸 김지나 양이 의료봉사팀으로 분당샘물교회 파송을 받고 참여 하던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지난 20일(금) 납치되었다.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 있어야 하겠기에 긴급 기도 요청을 하니 구출을 위한 기도 에 동참하기 바란다.

## 성경통독 시상 한 달에 두 번 한다

2007년 12월까지  
매월 2, 4째 주일 - 찬양예배 시간에  
7월은 29일(주) 한 번 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를 성경의 해로 정한 우리교회는 현재 수 많은 성도들이 성경통독새벽기도회를 통하거나 혹은 개인이 정한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 지난주까지 약 250여명의 성도들이 성경을 완독하였다.

그러나 매월 3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통독 시상을 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실시하다보니 한번에 너무 많은 성도들을 시상하게 되어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우리교회는 이번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8월부터 매월 2, 4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하기로 하고 7월에는 다음주(29일) 찬양예배 시간에 한 번 더 시상을 하기로 하였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분발하여 성경을 읽으며 본인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기도한다.

## 금주의 성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30)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with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Ephesians 4:30 [NIV])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

# 이 땅이 빛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이은준 선교사(카자흐스탄)

지난 7월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친(임금석,76세)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천성가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아오시던 중, 지난 7월 3일에 의사의 소견으로 자녀들이 모두 어머니를 뵙고 장례준비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여 모친을 뵙고 난 후 현재는 약간의 차도가 있습니다.



미르교회 예배드리는 전경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남부도시 타라즈입니다. 수도 알마타에서 서쪽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버스로 8시간 정도 걸려서 갈수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43만정도입니다.



부르니교회 예배드리는 전경

현재 교회건축은 조금 늦어져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KGB에서 우리의 사역을 주시하고 있어서 현지지도자를 보내어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성도들을 도시로 초청하여 성경공부와 양육을 수시로 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고 싶은 마을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8월4-6일까지는 전교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을교회(부르니마을교회, 반노프카마을교회)의 성도들과 어린이들도 모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도시에서도 심방과 전도활동 계속할 터**



건축중인 교회 내부와 외부 전경



혜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아원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심방과 전도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제자반 성경공부(선교사부부와 현지인 3명)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또 다른 1대 1 성경공부(초신자중심)와 제자육성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기도제목을 부탁드립니다.

1. 12월에는 종교활동 허가서와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2. 교회건축과 건축허가(준공)가 아무 어려움 없이 마무리 되도록
  3. 전교인수련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령충만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4. 이도시의 어두움의 영, 폭력, 살인, 마약, 교통사고, 이혼, 죽은 영혼섬기는 무속종교, 무슬림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5. 이 땅에 수많은 무슬림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 땅이 빛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도록
- 위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교회성도님 모두 주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하나님

## 유언 기도문

-우리부부의 시신을 기증하겠습니다-

이덕빈 집사(6교구)



주님!

80평생, 지금까지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25일 돌연 아내(한금희 권사)가 급성 뇌경색으로 졸도,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 후, 중환자실에서 3일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5월12일 퇴원하여 이제는 통원치료를 하게 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어라 감사드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8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 우리는 모두 참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생하여 원상회복의 재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심은 오로지 주님의 은총으로, 또한 한금희 권사의 평생 돈독한 신앙생활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저도 늙어가고 언젠가는 아니 내일이라도 소천 받게 될 것임을 금번 아내의 병환으로 통절히 깨달아 신변을 정리, 정돈하는 중에 두 부부의 시신을 기증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후, 조급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의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독교 성도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으나 세상에 살다보니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러니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가족은 물론 교회, 친구와의 교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즐기분하게 욕심, 시기, 질투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시민양성-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 장애우에게 이럴 날이 계속 되길...

## 이중창 집사(사랑부 부감)



지난 7월 14-15일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서울숲과 교회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모인 장애우들은 상기된 얼굴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개회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켜요'라는 주제로 이중윤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깊이 새기고 서울숲으로 향하였습니다. 야외 여름성경학교는 처음 해보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설레임이 교차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우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기회도 없었던 그들이기에 걱정보다는 설레임이 더하였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장애우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와' 소리로 지르고 손도 높이 들어 마음껏 환호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찬양,

울동을 따라하고, 물놀이 하는 분수대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면역이 약한 친구들과 중증장애우들은 뒤로 빠지고 걸지 못하는 장애우들은 선생님들이 안고 부축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맞았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와 괴성을 지르는 장애우들은 흥분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우들이 감기 걸리지 않을까, 병이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들과 함께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쉬움 속에 물놀이를 뒤로하고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잠든 장애우들의 모습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성취감과 만족함, 흐뭇함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장애우들에게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행복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랑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물질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신 성도님들과 맞난 식단을 마련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찬양

### -정통 클래식 기타와 미성의 소프라노-

오늘저녁 찬양 예배는 클래식 기타와 소프라노 독창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기타 하면 통속적이고 유희적인 통기타를 연상 하지만 클래식 기타는 고도의 연주기술과 예술성을 표현 할 수 있는 특수 분야의 악기이다. 장윤식 선생(4교구)이 연주 하는 클래식 기타와 한미 전국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소프라노 박혜진 양(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의 독창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 동정

- 임명: 김재진 목사는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교역자 여름휴가: 서명철 목사(7.23 - 7.28)  
대행: 이규정 목사(011-9061-7161)
- 개업: 윤미란 성도 "명성이 자자한 국시집" (3411-7776) 도곡동 현대비전 21빌딩(206호)
- 준공: 손영호 (경은숙, 1교구) 집사는 지난 19일(목) 반석기금진료연구소 빌딩을 신축,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 선교회(7.22) 모세선교회(7.29)
- 금주의 식사: 인천화 권사 이승준 집사 최문주 집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천국시민양성-성경일독을 마치고

# 올해는 성경의 해!

## 김진달 집사(12교구)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중에 성경통독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성경의 해로 선포하여 성경일천독 행사를 벌이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 저 역시 이번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당에서 종로까지 전철로 출퇴근 하면서 이 시간을 성경을 보는 일로 바꾸어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으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늘 마음으로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읽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끝까지 통독을 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이 크고 놀랍고 영원하시고 변함없

은심을 더욱 알게 되었으며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지만 특히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중에는 지나온 삶에 있어서 너무도 주님 밖에서 생활 한 것이 후회 가 되어 많은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이 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이번 처음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의 바쁜 일과 속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일독을 하여 은혜 받은 것은 난생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과 사랑의 삶과 또한 겸손함과 은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고자 다짐하며 일독을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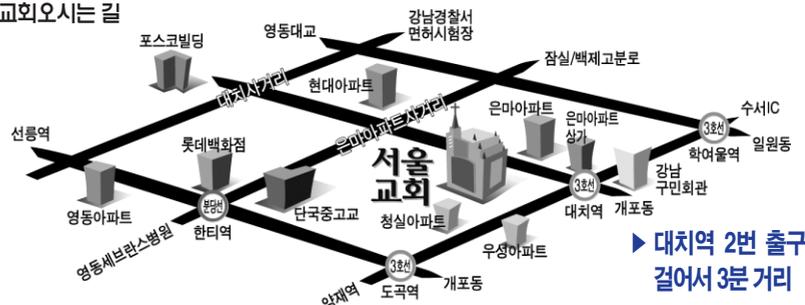
##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무더위에 온 교회 성도들 영 · 육간에 건강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